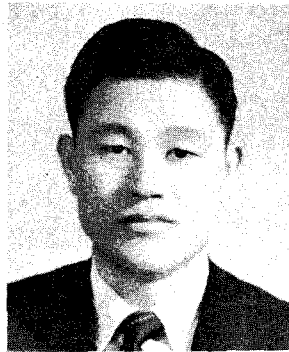


養鷄人 과 政府가 합심해결 해야 하는 이 많은 問題들



설 동 섭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

1. 전제(前提)

10년후의 양계산업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논하려면 10년후에 우리 국민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되며 이에 따라 양계 생산물을 어느 정도 소비 할 것인가를 먼저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한국개발원에서 추정한 1990년도의 국민소득은 1인당 7,000불에 도달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1978년도의 국민소득 1인당 1,242불 보다 무려 6배가 증가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소득 증가에 따라 당연히 축산물의 소비량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농수산부가 1978년 8월에 발표한 축산 진흥 장기 계획에 의하면 4,200만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소비하는 축산물은 육류가 100만톤, 우유가 280만톤, 계란이 133억개가 된다고 한다. 이 물량을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따져보면 고기가 현재 10kg에서 24kg으로, 우유는 9kg에서 50kg으로, 계란은 114개에서 290개로 각각 늘어난다는 추정하에 계산 된 것이다. 특히 육류는 전체 물량의 30%가 닭고기로 충당된다고 보아 계란 133억개와 닭고기 30만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가 사육해야 할 닭 수수는 산란계가 5,000만수, 육계 25,000만수, 브로일러 종계가 250만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배합 사료량은 산란계 350만톤, 브로일러 130만톤, 브로일러 종계가 20만톤으로 계 500만톤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체 배합 사료량 11,000만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 개발원의 발표와 농수산부의 장기 계획대로 한국의 양계 산업이 발전해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것을 필자 두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양계인 자신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둘째로는 정부가 해야할 일로 구분 할수 있는데 일의 비중으로 보면 우리 양계인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자 한다.

2. 양계인이 해야 할 일

첫째 사육 규모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국민 소득이 1인당 7,000불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보고 28,000불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양계 농가당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려야 평균 소득군에 끼어 들 수 있다. 가령 산란계에서 수당년간 소득을 1,500원이 보장 된다고 하면 약 10,000수 규모 이상이 되어야 양계의 전업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3,000수 이상이 전업 양계가가 되는 규모의 3배에 해당된다. 이 규모는 고용 노동이 거의 필요 없고 주로 가족 노력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부로일러의 경우에 수당 25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무려 6만수의 육체를 년간 사육 출하해야 하므로 현재 2만수 규모의 약 3배가 된다. 이와같이 지금보다 더 많은 양계 농가가 전업화 되어 갈것이고 현재 100만호가 넘는 양계 농가의 호수도 대폭적으로 줄어 들어서 적어도 계란은 시중 물동량의 80%를, 육체는 100%를 각각 전업농가가 생산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양계를 하는 농가도 앞으로 자가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스스로가 양계에 전업하든지 그만두고 다른 축산 또는 농업에 전념하든지를 판가를 해야 할 시대가 1980년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 상에서 제시된 규모로 본다면 채란계 5,000농가에, 부로일러가 5,000농가 해서 모두 10,000농가에서 양계를 하면 간단히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계 생산물을 1990년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가정은 양계 농가의 소득이 한국개발원이 제시한 1990년대 초기의 국민 소득 7,000불 대열에

끼이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 인플레이가 되어서 위에서 제시한 규모보다 적은 것으로도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거나 또는 추정된 것 만큼 국민 소득이 신장 되지 못했을 때에는 이보다 많은 농가가 양계에 참여 할수 있으나 그해보았자 20,000~30,000농가 이하의 전업 양계 호수에서 생산 되는 양계 생산물으로써 수요에 충족 되는 것이므로 현재 부업 형태의 양계농가가 대폭적으로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은 숙명적인 사실이다. 농업도 1980년대에는 과감하게 모든 분야가 분업화 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양산체제가 요구되고 인력이 부족 해지는 고도 성장 지향의 경제 개발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과도를 타서 양계 산업도 부업 도태와 동시에 전업 규모의 확대에 대한 기초 다짐은 지금 부터 착수 할 단계라고 본다.

둘째로 종계의 생산 공급 체계가 현대화 되어야 하겠다. 현재 전국에 500여개소의 종계장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그 규모와 시설은 각양 각색이어서 나오는 실용계도 그 품질이 여러가지이다. 몇년전과 같이 종계수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품질이 낮고 혈통을 알 수 없는 병아리도 잘 팔리고 또 양계 농가들이 이에 불평 없이 가져 갔지만 이제 종계는 포화상태로 확보 되어 있고 양계 생산물의 시세도 바닥을 기어오고 있다. 이제는 진실로 품질이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양계 위생면에서 저질 병아리가 가져오는 양계가에게 주는 피해는 막대하다. 양계산업이 본 궤도에 오른 후 이미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뉴캐슬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만연 되고 있는 사실은 1차적으로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병아리를 생산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종에 대한 기호는 양계가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름

있고 혈통이 확실히 보장되는 병아리를 찾게 된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종계 위생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 되고있다. 이것도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종계를 생산하는 종계장이 출현하므로 해서 점차로 양계가들이 기호를 높이는 것 같다. 그동안 품종은 펙이나 다양 했던것이 산란계 4~5개 품종, 육계 4~5개 품종으로 그 범위가 좁아져서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종계장 시설과 부화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서는 질병문제를 근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종계장 이동은 질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값비싼 행사이다. 그러나 한장소에서 계속 종계를 사육하므로써 일어나는 병균의 누적은 생산되는 병아리의 품질을 저하 시키는 것은 확실 하지만 윤번 휴한을 하는 여유있고 현대화된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잘 생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량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한국 양계산업에서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는 것을 특히 종계 부문에 국한 시키더라도 한두 군데 손을 꼽을 정도로 적고 그나마도 극히 최근에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현재 낙후된 종계장의 시설과 병아리 생산 체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닭이 희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양계농가에 주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동안 양계산물의 가격이 최근 몇년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므로써 양계 농가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호황을 누릴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은 앞으로 있을수가 없고 이미 금년 들어 파동을 겪은 양계산물의 가격 하락이바닥을 기면서 특히 부로일러 부문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다. 기껏해야 1990년에 가서 연간 산란계와 육계를 합해서 3억수 남짓한 병아리를 생산 공급 하는데 지금처럼 많은 종계장과 부화장이 피나는 각축전을 벌릴 필요가 없다. 적어도 연간 1,000만수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종계장 30개소 정도만 있으면 족할 것이다. 혼자힘으로 어려우면 기존 종계장들이 자본을 합자해서 통합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시급히 종계장과 부화장을 현대화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늘어나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병아리의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대기업 재벌들의 진출과 독점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셋째로는 일반 양계 시설의 현대화를 급진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양계 시설의 현대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강조 되어야 한다. 하나는 노동력의 절감이요, 또 하나는 질병 예방이라는 보다 중요한 측면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시설의 현대화에서 겁을 집어 먹는것은 시설비가 재래식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 현대화에서 오는 이익을 뚜렷이 인식 하지 못 한데서 기인되는 오류이다. 시설 당시 일시에 투자 되는 오류이다. 시설 당시 일시에 투자되는 비용은 물론 재래식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시설후 얻은 폐사 감소, 산란율 향상, 인건비 절감등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된다. 단지 시설의 현대화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직 국산화 되어 있지 않아서 해외 수입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샘플로 여러가지 모형의 시설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쓰면서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건축 자재 전문가와 상의해서 풀어 나가면 곧 국산화가 가능 하리라 생각 된다. 이미 이러한 작업을 착수 하려는 양계가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990 년대를 향하여 양계 규모가 커질것을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세계 각 선진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양계 시설들을 수입해서 늦어도 1983 년도 까지는 양계 시

설의 국산화는 우리 양계인의 힘으로 촉진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양계 생산물의 판매 조직을 재정비해서 양계 농가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일이다. 먼저 판매 조직을 재편 할때 고려해야 할 것은 생산자가 참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자가 생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동시에 생산 조절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야기로는 인테그레이션 시스템(Integration system) 도입을 많이 찬양하고 있다. 물론 좋은 방법이며 우리가 크게 참고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식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은 하나의 큰 자본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생산 판매 조직이므로 재벌들의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양식 생산 판매 조직이므로 실제로 생산자들은 자본주의 심부름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성이 없고 좋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보드시스템(Board system)은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및 정부 대표로 구성된 조합에서 모든 양계 생산물을 취급하는 소위 창구 일원화로 되어있는 시스템이어서 양계업자들이 보드와 일종의 생산계약 즉 허가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만족하는 선에서 거래 가격이 결정 되므로 생산자가 일정한 이익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미국식과 차이가 없으나 양 시스템에 입장 일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여 가장 좋은 점을 두 시스템에서 따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 판매의 체계를 하나로 연결 시키고자 하는 참뜻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하자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상인의 배제가 강력히 고려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갖어서는 안되는 것은 생산물의 판매 촉진

은 충분히 마-진을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이 보다 강력히 고려 하고 있고 보-드 시스템은 소매, 가공전단계 까지만 강력히 관여하는 점의 차이가 있다. 사료, 종계, 생산, 판매를 잘 조직해서 1990 년대가 요구하는 양계 산업을 무리없이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갖춘 생산, 판매 조직을 갖추어야 하겠다

다섯째, 종계의 국산화를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도입 육종을 바탕으로 해서 기히 조합된 셋트계 도입을 계속 장려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종계의 국산화를 해가면서 우리 나름의 국산계 육종을 정착 시키는 문제가 고려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일은 한국가금 육종 협회나 연구소를 설치해서 종계 및 양계가들이 지원을 하고, 정부가 이에 보조비를 주어서 국내 브레인을 모아 육종 업무를 맡게 하거나 종계 회사의 육종 업무를 지원 하도록 하는 일이 또한 시급하다. 지금까지 외국계 도입을 70 년 초 중반의 몇년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이에따라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것이 누적 되므로써 종국에 가서는 품종 개량의 효과 보다는 질병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므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산계 보급이 더 바람직 하더라는 호주의 예를 우리는 다소 참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양계 공해에 대한 조치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때문에 양계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

앞으로 발족될 환경청이 생기면 이양계 공해 문제 반드시 대두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양계 질병은 대부분 계분 운반차가 옮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분의 처리는 환경 공해에 그치는것이 아니고 양계장 자체의 위생 문제에도 직결되고 있으므로 위생적인 처리가 꼭 고려 되어야 하겠다.

갑자기 많은 투자로 공해 제거 장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간단한 발효법 같은 방법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금의 여유가 생길때 건조 장치를 시설 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가짐은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3. 정부가 해야 할 일

양계인이 해야 할 일 몇가지를 앞서 이야기 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마치 양계인이 자동차라면 정부는 교통 순경과 같은 방향 제시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이 주된 임무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양 측면에서 해야 할 일들은 각각 포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양계인이 일을 정부는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양계인의 일과 상대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할 일을 지적해 나가기로 하겠다.

첫째 10년후에 500만톤이 넘는 양계 배합 사료를 원활히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료사료 수입 및 가격의 자유화, 원료사료 저장 싸이로 시설 확대, 사료의 펠렛트화, 운반차량의 벨크로리(Balk Rolley) 화등을 추진해서 사료의 품질 개선 및 위생적 처리도 동시에 도모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원료 사료의 도입 제한, 사료가격의 일방적인 억제 등은 사료 공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사료 제조만을 조장 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여기서 오는 사료 품질의 저하 및 사료 공급의 부조리에 의한 피해는 모두 양계 농가에게 그대로 가게 마련이므로 하루빨리 이 문제는 정부가 손을 써서 풀어 주어야 할것 같다.

원료의 저장 싸이로 시설은 적어도 도입 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수수 만이라도 2~3개월분은 저장 할 수있는 싸이로를 시급히 확보 하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계속 노지에 하치해 둘 수 밖에 없고 이

것은 부패 되는 손실과 또한 사료 품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서 양계 농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직접, 간접으로 줄 것이다. 1990년대에 가면 도입 사료만 해도 1,100만톤이기 때문에 1만톤 짜리 배가 매일 3척씩 도착 해서 사료를 하역해야 하는 물량 이므로 적어도 사료 하역을 전담 하는 항구나 부두가 따로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싸이로도 적어도 10만톤 짜리 20개 이상 하역 항구에 인접해서 설치 되어 있어서 콘베이어 또는 벌크 시스템으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의 펠렛트화는 위생적인 측면 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사료에서 오염되는 만성 살모넬라균증 같은 질병은 양계 산업에 미치는 손해가 대단해서 종계와 일반 실용계에서 공히 문제가 심각해 지고있다. 그래서 사료 배합시 펠렛트화는 이것을 대폭 감소 시켜 주고 닭이 먹을때 허실이 없다는 점과 양분을 균일하게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에서는 매우 권장 할만한 조치이다. 이것은 사료 업계에 일시 많은 투자를 요하는 것이 되겠지만 년차적인 계획 하에서 기존 배합기에 펠렛트 장치를 증설 하도록 권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 운반 차량의 벨크로리화는 싸이로에서 사료 배합 공장까지 또 사료 공장에서 양계장, 사료빈까지 노다지로 운반 하는것을 의미 한다. 이것은 포장비 보다 운반량이 많고 운반을 위한 포장비가 필요 없으므로 생산 공장이나 소비하는 양계장 양측이 다같이 이익이 된다. 첫째 사료의 손실이 적고 적하차시 인부가 필요 없으며, 포장지가 따로 소요 되지 않으므로 사료비를 절감 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료 공장이나 양계장이 모두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별

크시스템과 사료빈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만 이것이 적용 가능하므로 시설의 현대화와 같이 추진 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 되겠다.

둘째로는 양계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앞서 양계인들이 할 일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양계 시설의 현대화란 시설 투자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양계인들이 주저하고 또 선각자들이 필요해서 구하고자 하면 외국에서 일일이 수입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정부는 과감히 새로운 시설을 샘플 수입해서 이를 국산화 하는 공장을 육성 하는 일을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이러한 매개 역할에 착수 했거나 하려고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정부는 강력히 지원해서 육성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러한 샘플시설은 정부가 도입을 해서 국가 기관이나 청부 산하 단체에 설치 전시하고 이것을 기초로 국내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더우기 공해 방지 시설이나 계란 포장센터 같은 새로운 시설은 국가가 과감하게 보조해서 시범 시설을 하는 것이 양계인들이 받아 드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1990년대의 양계 산업을 현대화 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 해야 하겠다.

셋째로 종계 생산의 국산화에 대하여 깊이 관여 해야 할것이다. 물론 양계인 자신들이 보다 깊이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지만 국가 기관이든 개인 종계장이든 간에 기히 외국에서 개발된 종계 셋트를 드러와서 이것을 국산화 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국내 육종전문가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P. L이나 GPS 를 불문하고 가장 좋다고 알려진 셋트를 3~4품종 들여와서 이것을 국산화 하는 면을 고려 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 거양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육성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예방약 제조용 SPF종란 공급을 위한 민간 생산 육성에 대한 지원이다. 백신 제조에서 현재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바로 SPF종란 대신 일반 종란을 쓰므로써 거기서 오염되는 각종 병원균이 오히려 예방 접종 하므로써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실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급히 SPF종란 생산 농장을 1~2개소 육성해서 적어도 거기서 생산된 종란은 백신 제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서 백신을 제조해야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SPF종란 생산농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 양계업자가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빨리 제거해 주자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 할 것은 예방 접종약 중에서 대군 사육에 문제가 되는 주사 방법 대신 스프레이 또 음수용으로 개발된 좋은 것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국내 생산이 될때까지 수입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양계산물의 유통 체계 개선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양계인 자신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이지만 10년후의 양계 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양계인과 협의해서 양계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조직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개재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개재하지 않고 일이 시작 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생산물 판매를 적어도 도매까지는 생산자 조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생산조절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적어도 생산물의 30% 정도만 계란

시장 및 육계 도제 시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유통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이 조직을 어떤 형태로 유도 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산란계 경우 전국에서 3,000수 이상 사육하는 양계 농가가 1차적으로 조직을 해서 계란을 각 지역의 집하장인 한창구에서 내도록 하는 방안과 철저하게 품종과 사료 생산 단위로 계열화 시키는 방법을 잘 절충해서 유통 체계를 연구해 보자 한다. 계열화를 하되 자본주의 계열이 아니라 어떤 단지 중심으로 사료, 품종 판로를 연결 짓되 이런 단지가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해서 유통 조절과 생산 조절을 도모하는 방안도 생각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 간에 정부는 이러한 조직을 갖도록 양계 관세 협회나 친목회 등을 발전 시키 나가도록 유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여섯째는 양계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양계장을 새로 설치 할 수 있는 땅도 현재의 법규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양계장 후보지에 대한 설치허가도 관계 부처와 협의 해서 완화 하도록 해야 하겠고 깨끗하고 음진이 좋은 종계 생산을 위하여 GPS나 P. L이 있는 농장 근처에는 일정한 거리 이내에 다른 양계장을 설치 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전염병 발생제와 양계장에 대한 철저한 조치는 꼭 시행해서 양계농가가 안심하고 양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3. 맺는 말

이제 양계 산업은 정부의 간섭을 받기전에 양계인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한다. 앞에서 양계인과 정부가 할 일을 야단스럽게 구분해 가면서 몇 가지 내놓기는 했지만 이런 정도의 일을 누

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필자 볼 때는 해보지 않는 것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1980년대에는 이렇게 산적해 있는 양계 산업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년대로 생각하고 우리 양계인과 정부는 모두 합심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예를보면 양계에 불황이 왔다면 양계인은 정부를 원망하고 정부는 양계인들을 미련하게 생각 하는 것이 통례였다. 불황을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경기와도 매우 연관이 깊어 요즘과 같이 예기치않던 유류파동이 갑자기 와서 침체 되는 경기란 누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오직 이러한 불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쪽은 생산자 이기 때문에, 단지 생산자가 필요한 것은 사전 정보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경기 전망, 시장 정보, 사육 현황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양계협회에 부여 하여 정보 수집을 해서 양계인에게 알려 주는 것이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가지 잊을뻔한 일은 양계 산물에 대한 집요한 홍보 활동이다. 지난 15년간의 계란 소비를 보면 1인당 1962년에는 32개 이던 것이 10년간 꾸준히 늘어나서 1972년에는 83개가 되었으나 5년 후인 1977년에는 겨우 14개(년간 3개 평균)가 늘어난 97개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소비 침체는 닭고기에도 마찬가지여서 1972년에 1인당 소비량이 1.6kg였는데 5년 후인 1977년에는 겨우 2.0kg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 하였다. 우리가 불황에 대한 원망은 많이 하면서도 양계산물에 대한 홍보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

은 마치 누워서 나무의 감이 내입에 왜 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불평을 하는 것파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다른 육류나 우유도 같은 불경기를 겪었지만 계속 소비가 신장한 데 비하여 양계 생산물만이 유독 저조 하다고 하는 것은 양계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충분히 선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좌담회나 하고 매우 지엽적인 닭고기, 계란 요리 강습회를 개최 했다고 양계 산물 소비 선전을 다 했다고 보면 큰 잘못이다. 외국의 예를보면 신문, 잡지, TV, 포스타 해서 독자나 시청자들이 선전한 요리나 음식을 먹어 보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로 시끄럽게 또 집요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킨 데이(Chicken day)같은 날을 정해서 큰 행사도 하고 새로운 양계 산물 요리나 음식의 시식회도 하는등 요란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양계인이 이런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협회는 무엇 하는데 쓰는지 모를 정도이다. 양계인들이 협회를 활용해서 돈을 적립하여 양계 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선전을 한번 해 보란 말이다. 양계 잡지에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요리나 계란 요리를 칼라판 사진으로 내놓은 것을 나는 기억한다. 양계잡지란 양계 농가와 관련 요원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지나지 않는다. 양계 농가에 이런 요리를 선전해서 어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대중잡지나 신문 칼라판에 이런

것을 내어 본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닭고기나 계란 요리 센터를 개점 해서 선전을 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처럼 튀겨서 빵조각과 같이 싸서 실비 선전을 하는것도 캠페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계속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는 국가 차원에서도 쇠고기 소비를 닭고기로 돌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강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물론 소비자로 하여금 먹으라 해서 먹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도록 하는 의욕을 갖게끔 정육점에 닭고기 정육도 판매를 시도해 보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쇠고기 곰탕으로 부터 시작하여 쇠고기가는 음식으로 되어있는 탕류는 모두 닭고기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점등은 관민이 다같이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본다. 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양계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생산물에 대한 소비에 무관심 하다면 '80년대에 가서도 계속 소비량이 다른 축산물에 뒤지고 신장율이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마저 일어난다.

이번 11월이 월간 양계 발간 10주년을 맞는 달이라 해서 마침 나에게 약간의 양계 산업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보는 기회를 주어서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못한다는 기분으로 한마디 해 본 것이니 참고 있으시기 바라고 월간양계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 하면서 이 글을 끝 맺을까 한다.

월간양계 합본 판매중

78. 6~78. 12

79. 1~79. 6

문의는 ② 6917